

구약논찬

제14권 4호(통권 30집) 2008년 12월 31일

오 원근(나사렛대 겸임교수) 창세기와 희년서의 아브라함 상 비교

희년서의 저자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다시 쓰는 과정에서, 당시 주변 열강의 '다문화 정책'의 위협 아래 강요되었던 이방종교와 문화로부터 유대종교-문화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서원문에 존재하는 문학적 오류나 해석학적 난제를 당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풀어내어 성서원문과 자신이 속한 역사적 상황에 모두 충실하였다.

Oh, Won-Keun

Abraham in the Book of Genesis and Jubilees

창세기와 히년서의 아브라함 像 비교

오 원근 | 나사렛대

1. 서론: 연구목적과 범위

유대주석전통의 연속선상에서 '정경'과 '주석' 간의 차이가 극명하지 않은 시기에 태동한 제 2성전기의 개찬성경은 당대인들이 보다 쉽고 분명하게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서 원문을 고쳐 기술한 문학 장르이다. 개찬성경은 기본적으로는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삭제, 축약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성서 원문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장단문의 부연 설명이나 저자의 창조적인 추가문을 원문에 적절하게 삽입하여, 성서 원문 내에 존재하는 해석학적 질문과 당면한 시대적 요구에 보다 명료한 해답을 주었다.¹⁾

주목할 만한 것은, 제 2성전기의 개찬성경으로 분류되는 문헌들에서는 아브라함이 비중있게 다루어졌으며, 창세기의 아브라함 상과는 상이한 모습으로 기술되었다. 아브라함이 초기 유대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등장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초기 유대주의 문학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산드멜(S. Sandmel)은 제 2성전기의 유대 문학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1) 개찬성경의 개괄적인 이해와 유대 주석 전통상에서의 위치에 대해서는 오 원근의 "개찬성경의 유대 주석 전통상의 위치," 「구약논단」 22 (2006년 12월), 129-142쪽.

중요성에 대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연구하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²⁾ 이후 달(N. A. Dahl)도 산드멜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초기 유대 문학뿐 아니라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달은 그의 “누가복음-사도행전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였다.³⁾ 아브라함을 통해 신약 성경과 초기 유대주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와드(R. B. Ward),⁴⁾ 모스네스(H. Moxnes),⁵⁾ 한센(G. W. Hansen),⁶⁾ 그리고 알렉산더(T. D. Alexander)⁷⁾에 의해 계속됐으며, 이들은 모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하려는 초기 유대주의 문헌들과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의 율법에 우선하며, 따라서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순종의 행위에 우선함을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가 신약의 아브라함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기 유대주의의 아브라함 연구가 다소 미흡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제 2성전기의 개관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 연구는, 아브라함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했던 당대인들의 성서 해석학적 노력을 밝힐 뿐 아니라, 이후 등장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유대주의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⁸⁾

2) 인용은 필자의 해석임. S. Sandmel, *Philo's Place in Judaism: A Study of Conceptions of Abraham in Jewish Literature*,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56), 29쪽.

3) N. A. Dahl, "The Story of Abraham in Luke-Acts," L. E. Keck/J. L. Martyn(eds.), *Studies in Luke-Ac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140쪽.

4) R. B. Ward, "Abraham Traditions in Early Christianity," R. A. Kraft(ed.), *1972 Proceeding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and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Pseudepigrapha Seminar(SCS 2)*, (Missoula: SBL, 1972), 165-79쪽.

5) H. Moxnes, *Theology in Conflict: Studies in Paul's Understanding of God in Romans* (NovTSup 53), (Leiden: Brill, 1980).

6) G. W. Hansen, *Abraham in Galatians: Epistolary and Rhetorical Contexts*(JSNTSup 2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7) T. D. Alexander, "Abraham Re-assessed Theologically: The Abraham Narrative and the New Testament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by Faith," R. S. Hess/G. J. Wenham/P. E. Satterthwaite(eds.), *He Swore an Oath: Biblical Themes from Genesis 12-50*, (Grand Rapids, MI: Baker Book, 1994²), 7-28쪽.

8) J. S. Siker, *Disinheriting the Jews: Abraham in Early Christian Controversy*, (Louisville:

필자는 제 2성전기의 개찬성경이라 일컬어지는 문헌 중에서 당시에 가장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기술한 희년서의 연구를 통해, 초기 유대주의의 자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서 해석학적 노력의 한 단면을 살피고자 한다.⁹⁾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의 내용을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의 형태로 기록한 희년서는 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회복의 예언을, 그리고 2-50장에서는 현존의 천사(Angel of the Presence)가 모세에게 준 계시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아래와 같다.¹⁰⁾

1	소개
2-4	창조와 아담 이야기
5-10	노아 이야기
11-23:8	아브라함 이야기
23:9-32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여담
24-45	야곱 이야기
46-50	모세 이야기

본 논문에서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의 문학 구조적 틀을 구성하는

Westminster, 1991), 15쪽.

9) 개찬성경으로 분류되는 문헌 중 성서 고대사(Pseudo-Philo'LAB)와 창세기 외경(*Genesis Apocryphon*)에서도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나, 희년서에 비해 그 기술이 지나치게 선택적이고 간결하다.

10) जुबिल리의 저작 연대에 관하여는 학자들 간의 견해 차이가 있으나, 대략 160~150 BCE(마카베오가 시대)로 추정된다. R. H. Charles, *The Book of Jubilees or the Little Genesis: Translated from the Editor's Ethiopic Text*,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02), 1viii-1xvi; G. L. Davenport, *The Eschatology of the Book of Jubilees*(SPB 20), (Leiden: Brill, 1971), 10-18쪽; G. W. E. Nickelsburg, *Jewish Literature Between the Bible and the Mishnah: A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SCM, 1981), 78쪽; J. C. VanderKam, *Textual and Historical Studies in the Book of Jubilees*(HSM 14),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214-285쪽. idem, *The Book of Jubilees: Guides to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7-21쪽; idem, "The Origins and Purposes of the Book of Jubilees," M. Albani/J. Frey/A. Lange(eds.), *Studies in the Book of Jubilees*(TSAJ65), (Tubingen: Mohr, 1997), 3-24쪽; J. C. Endres,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Jubilees*(CBQMS 18), (Washington: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87), 237-38쪽; O. S. Wintermute, "Jubilees," J. H.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 2: Expansions of the "Old Testament" and Legends, Wisdom and Philosophical Literature, Prayers, Psalms, and Odes, Fragments of Lost Judeo-Hellenistic Works*,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85), 43-44쪽; J. T. A. G. M. Van Ruiten, *Primaevial History Interpreted: The Rewriting of Genesis 1-11 in the book of Jubilees* (JSJSup 66), (Leiden: Brill, 2000), 1-3쪽; B. Halpern-Amaru,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JSJSup 60), (Leiden: Brill, 1999), 1-3쪽.

창 12장 1-9절, 17장 1-27절, 22장 1-19절을 회년서와 비교하여, 아브라함 이야기를 개찬함에 있어 사용된 회년서의 주석 방법과 그 해석학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¹¹⁾ 이를 위하여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회년서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대조표를 아래에 붙인다.

11)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의 문학구조적 틀에 대해서는 오 원근, “창세기의 성결사상,” 『구약논단』 제 26집 (2007년 12월), 14-17쪽.

11:24-25	테라의 출생 []	11:9-13	테라의 출생 까마귀로 인한 피해
11:26	아브람, 하란, 나홀의 출생 [] [] []	11:14-17 11:18-24 12:1-8	아브람의 출생 아브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아브람이 까마귀를 쫓아내다 우상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아브람의 간구
11:27 11:28	롯의 출생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의 죽음		
11:29 11:30	아브람과 나홀의 혼인 무자한 사래 [] []	12:9a 12:9b 12:10a 12:10b 12:11 12:12 12:13-14	아브람의 혼인 [] 사래: 아브람의 아버지의 딸 하란의 혼인 롯의 출생 나홀의 혼인 아브람이 우상을 불사르다 불 속에서 하란이 죽음
11:31 11:32	테라와 그 가족이 하란으로 떠남. 테라가 하란에서 죽다 [] []	12:15 12:16-20 12:21	테라와 그 가족이 하란으로 도망 아브람이 별을 보며 하나님께 간구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
12:1-3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 []	12:22-24 12:25-27 12:28-31	명령과 약속을 응답으로 주심 아브람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심 테라가 아브람의 떠남을 축복하고, 롯을 아들로써 데리고 갈 것을 부탁
12:4-9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떠남	13:1-9	아브람이 가나안으로 떠남
12:10 12:11-14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감 아브람이 사래에게 거짓을 요구	13:10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감 []
12:15-20	사래의 위협	13:11-15	사래의 위협
13:1-18	아브람이 롯과 헤어짐	13:16-21	아브람이 롯과 헤어짐
14:1-24	아브람이 롯을 구함	13:22-29	아브람이 롯을 구함
15:1-21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 []	14:1-20a 14:20b	하나님이 아브람과 맺은 언약 아브람이 절기와 규례를 회복함
16:1a	사래가 무자함 []	14:21	[] 아브람이 사래에게 모든 것을 말함
16:1b, 2b-3 16:2a 16:4 16:5-6 16:7-14	사래가 아브람에게 하갈을 줌 사래가 무자함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 사래가 하갈을 학대함 하갈이 하나님을 만남	14:22	사래가 아브람에게 하갈을 줌 [] [] []
16:15	이스마엘의 출생 []	14:23-24 15:1-2	이스마엘의 임신과 출생 아브람이 칠칠절을 지키
17:1	하나님의 명령	15:3	하나님의 명령

17:2-8	영원한 언약	15:4-10	영원한 언약
17:9-14	할례의 규례	15:11-14	할례의 규례
17:15-16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약속	15:15-16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약속
17:17	아브라함이 웃음	15:17	아브라함이 기뻐함
17:18-22	이스마엘을 염려하는 아브라함	15:18-22	이스마엘을 염려하는 아브라함
17:23-27	집안 모든 남자를 할례함 []	15:23-24 15:25-26	집안 모든 남자를 할례함 이스라엘만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며, 모든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필수임
18:1-10	아들이 약속됨	16:1-2	아들이 약속됨
18:11-15	사라의 웃음	16:2	사라의 웃음
18:16-33	소돔을 중재하는 아브라함 []	16:3-4	사라에게 이삭을 임신할 것임을 약속함
19:1-29	소돔에서 롯을 건짐	16:5-6	소돔의 멸망
19:30-38 20:1-18	롯의 딸의 근친상간 사라의 위협	16:7-9	롯의 딸의 죄 []
21:1-7	이삭의 출생과 할례 []	16:10-19 16:20-31	이삭의 출생과 할례 아브람이 장막절을 지킴
21:8	이삭의 젖 떼는 날의 대연 []	17:1-2 17:3-4	이삭의 젖 떼는 날의 대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축복함
21:9-21 21:22-34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계약 []	17:4-14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음 []
	[]	17:15-16 17:17-18	마스테마가 아브라함을 시험 것을 제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아심
22:1-2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18:1-2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22:3-10	아브라함의 순종	18:3-8	아브라함의 순종
22:11-12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심 []	18:9-11 18:12a	하나님을 경외함을 재확인함 마스테마가 부끄러움을 당함
22:13-14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심	18:12b-13	하나님이 양을 예비하심
22:15-18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함 []	18:14-16a 18:16b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신실함을 아심
22:19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돌아감 []	18:17 18:18-19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로 돌아감 아브라함이 절기를 지킴

2. 회년서의 아브라함 분석 연구

1) 회년서 11장 1절-12장15절에 개찬된 창 11장 20-32절

창세기가 간략한 계보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회년서는 창세기에는 단지 이름만 등장하는 인물들의 설화를 삽입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회년서가 장문의 추가로 창세기 족장사의 역사적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룩(Serug)의 출생으로 전쟁과 온갖 죄악이 성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모두 마스테마(Prince Mastema)의

역사(계략)를 따라 일어난 것이다(회년서 11: 2-6).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의 출생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회년서 11장 16-17절이 기록한다.

아이[아브람]가 모든 부정한 것을 좇아 유리하는 인류의 죄악을 깨닫기 시작했다. ... 열 네 살이 되었을 때, 우상숭배를 멀리하기 위해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 그는 모든 인류의 죄악에서 자신을 건져내어 부정함과 사악함을 좇아 유리하지 않기를 창조주께 기도했다(사역).

위의 글에 나타난 것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과 모든 인류와의 대조를 드러냈다는 면에서는, 회년서가 창세기의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다.¹²⁾ 그러나 회년서가 아브라함의 출생과 그의 종교적 열심과 경건함을 이야기의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님 이 돌연히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부르신 창세기와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창세기의 별 볼일 없는 아브라함을 그 출생부터 위대한 영웅으로 등장하게 하는 회년서의 노력은 11장 7절 - 12장 8절의 키아즘 구조에서도 엿볼 수 있다.

- A 나홀의 출생과 함께 드러난 우상 숭배(11장 7-8절)
- B 데라의 출생과 함께 드러난 까마귀 공격(11장 9-13절)
- C 아브람의 출생과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혜(11장 14-17절)
- B' 아브람이 까마귀를 쫓아냄(11장 18-24절)
- A' 아브람이 우상 숭배를 버림(12장 1-15절)

회년서 저자의 창조성은, 그가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해석학적 문제를 소년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통해 풀어 나간다는 점에서 더욱 빛이 난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의 죽음(창 11: 28)과 데라의 가족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창 11: 31) 창세기를 대하는 독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에 대해 회년서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상 숭배

12) 창세기의 고대사(1 - 11장)와 족장사(12 - 50장)를 나누는 분수령은 아브라함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순종을 통해 언약을 맺는 사건은, 창조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인류의 방향과 대조된다.

를 미워하는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신전을 불사르고, 동생 하란은 불길에 휩싸인 우상들을 건지려다 죽게 된다(희년서 12: 12-24). 반더캄(J. C. VanderKam)은 이것이 창 11장 28절의 지명 ‘우르’(אוּר)가 ‘불’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אֹר) 오르)와 같은 자음을 가진 데서 착안한 재치 있는 해석이라고 주장한다.¹³⁾ 이러한 창조적인 삽입은 데라의 가족이 왜 우르를 떠나야 했는지(창 11: 31)도 설명한다. 아브람의 열정이 가족을 위협에 빠뜨리고, 우상을 잃어버린 마을 사람들로부터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데라가 그의 가족을 이끌고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는 것이다.

2) 희년서 12장 16절-13장15절에 개찬된 창 12장 1-20절

창 12장 1-9절을 개찬함에 있어서, 희년서의 저자는 이 부분에 등장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명령, 약속, 순종)를¹⁴⁾ 포함하면서도, 경우에 따라 이야기를 추가함으로써 창세기의 원문과는 다른 곳에 강조를 두고 있음을 보인다.

창 12: 1-9의 구조	희년서 12: 16 - 13: 9의 구조
a. 명령 12:1 “가라”	a. 아브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 12:16-21 “돌아가야 하나요?”
b. 약속 12:2-3	b.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 12:22-24 “아브람이 기도를 마치자 마자,”
c. 순종 12:4-9 “갔다,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c. 아브람이 히브리어를 공부함 12:25-27
	d. 아브람의 떠남을 데라가 축복함 12:28-31 “평안히 가라” e. 아브람이 떠남 13:1-9 “갔다”

위 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명령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의 장이 열리게 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희년서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열정적인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구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저의 생명을 찾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여기 제가 머문 곳에 있어야 하나요? 주의 종을 통하여 당신의 길을 평탄케 하

13) VanderKam, *The Book of Jubilees: Guides*, 47쪽.

14) 참조 오 원근, “창세기의 성결사상,” 17-21쪽.

소서 ...”(회년서 12: 21).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창 12: 1)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한 아브라함의 종교적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해석이다.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이르러서야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실함(경외)을 나타낸 창세기(창 22: 12)와는 대조적으로, 회년서에서는 처음부터 그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믿음을 강조한다.

아브라함의 열정적인 믿음을 강조하고자 한 회년서 저자의 문학적 재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바로 이어지는 회년서 12장 22절은 창 12장 1절의 개찬문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아브람)가 기도하기를 마치자 마자”라는 문구를 원문에 삽입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창 12: 1)의 직접적인 배경이 아브라함의 열정적인 믿음의 간구였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회년서 12장 22-24절에서, 창 12장 1-3절의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언급한 후, 창 12장 4a절의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를 기록하는 대신, 회년서의 저자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의 허락과 축복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회년서 12: 28-31).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기술한 창세기와는 다르게, 회년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후 아버지 데라와 14년을 더 하란에 머물렀다고 기술한다(회년서 12: 15).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회년서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아브라함의 종교적 경건함과 아울러 도덕적 완전함까지도 고수하려는 회년서 저자의 노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늙은 아버지를 저버리고 떠나는 창세기 아브라함의 비 도덕성을 보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⁵⁾

데라의 축복 장면에서, 회년서의 저자는 또 다른 해석상의 난제를 해결한다. 즉, 롯의 문제이다.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창 12: 1)라고 명령하고, 아브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창 12: 4a)라고 기술하면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였다.

15)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산술적으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창 12: 4)이고 데라의 나이는 145세이며, 그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은 것을(창 11: 32) 감안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후 데라는 60년을 더 살았다고 볼 수 있다.

바로 이어 “룻도 그[아브람]와 함께 갔으며”(창 12: 4b)라는 내용이 독자를 당황하게 한다. 여호와와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이 왜 룻을 데리고 갔는가? 룻은 분명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속한 자이다. 아브라함의 무지함 때문인가? 아브라함의 불완전한 순종인가? 아니면 교묘한 불순종인가? 희년서의 저자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떠나는 길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나홀은 두고 룻은 아들로서 데리고 갈 것을 부탁하는 문구를 삽입함으로써(희년서 12: 30), 창세기에서 서로 대치되는 문구를 바로 잡았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희년서 저자의 의도는 창 12장 4a의 “여호와와의 말씀을 좇아”라는 문구 자체를 희년서 13장 1절에서 생략함으로써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생략으로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이 덜 강조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흔들리지 않는 순종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확고히 하려는 희년서의 노력은 아래의 표에 보인 바와 같이 창 12장 10-20절의 개찬에서 다시 나타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거짓말을 요구하는 장면(12: 11-14)을 삭제함으로써, 사라가 애굽의 바로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이 없음을 보이 고자 했다(희년서 13: 10-15).

창 12: 10-20	희년서 13: 10-15
12:10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간 아브람 12:11-14 아브람이 사라에게 거짓말을 요구함 12:15-20 사라의 위협	13:10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간 아브람 [] 13:11-15 사라의 위협

3) 희년서 15장 1-34절에 개찬된 창 17장 1-27절

희년서의 저자는 창 17장 1절-27절의 개찬을 아브라함이 칠칠절을 지키는 장면으로 시작한다.¹⁶⁾ 구약성경에서 이 절기는 모세의 시대까지는 언급이 되지 않는다(출 23: 16; 34: 22; 레 23: 15-20; 민 28 - 29장; 신 16장). 칠칠절이 이 부분에 언급된 것에 대해 반더감은 “[희년서의]저자가 창 17장 21절에 등장하는 **שבעה** (‘절기’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에 착안하여 창 17장의 내용이 ‘절기’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유추

16) 희년서는 아브라함이 노아 이후 칠칠절을 지킨 유일한 사람이라고 기록한다(6:17-19).

했다”고 주장한다.¹⁷⁾ 다시 말해, 원문에서 그 뜻이 모호한 단어를 유추 해석할 뿐 아니라 이를 확대함으로써, 칠칠절을 지키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교적 경건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창 17장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제시한 해석학적 창조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회년서의 저자가 창 17장 1-2절을 개찬하면서, 창 12장 1-3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시하신 직접적인 배경(이유)을 제공한다. 이를 아래의 표에 보인다.

회년서 12: 16-24		회년서 15: 1-4	
a. 직접적인 배경이 주어짐	12:16-21	a. 직접적인 배경이 주어짐	15:1-2
b. 명령과 약속이 뒤따름	12:22-24	b. 명령과 약속이 뒤따름	15:3-4

두 부분(창 12: 1-3과 17: 1-2의 회년서의 개찬문) 모두에서, 창세기의 원문에 상상력이 풍부한 주석을 첨가하는 것으로 회년서 저자의 창조적인 문학적 재치가 드러난다.

특히 회년서 15장 1-2절에 추가된 제의적 상황의 추가는 아브라함의 종교적 열심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뿐 아니라, 창 17장 1절에 주어진 명령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에 제의적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희생을 드리는 제의적 상황 아래 두면서, 히브리어 **קָטַח**에 제의적 순결함(흠이 없음)의 의미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발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할 수 있다”는 제의적 해법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창 17장 22-27절의 할례의 시행을 개찬하면서 추가된 장문의 삽입 구문(회년서 15: 25-34)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회년서 15장 5-24절에 창 17장 3-27절을 대동소이하게 옮긴 후, 회년서의 저자는 할례법의 본질을 소개한 장문의 삽입을 통해 할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 오직 이스라엘만 택하셨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회년서 15: 30-31). 이스라엘 백성 외에 그 어디에도 성결함은 없다. 하나님이 악령을 모든 이

17) VanderKam, *The Book of Jubilees: Guides*, 50쪽.

- 방 민족 위에 두셔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게 하였다.
2.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결함은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태이다.
 3. 그러나, 이미 주어진 성결함의 상태에 거하기 위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한다(회년서 15: 26, 28). 따라서 할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증표이다.
 4.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없고(회년서 15: 26, 27),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며(회년서 15: 34), 따라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회년서 15: 26).

문학적 정황으로 볼 때, 위에 소개된 장문의 삽입은 상당히 전략적인 위치 -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남자(이스마엘과 이방인을 포함해서)에게 할례를 행한 사건(회년서 15: 23-24)과 이삭의 탄생과 그의 할례 사건(회년서 16: 1-14)의 사이 - 에 놓여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증표라고 확신하는 회년서의 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집에서 성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창 17: 23-27)이 달갑지 않았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마도 삭제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창 17: 12; 회년서 15: 12) 집안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모두 고수하려는 저자의 해법이 바로 추가된 회년서 15장 25-34절이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그의 자손을 택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도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들 위에 악령을 두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방황하게 하셨다(회년서 15: 30-31)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단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스마엘이나 이방인도 언약의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오해를 제거하고, 오직 이스라엘만이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신학적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4) 회년서 17장 15절 - 18장 19절에 개찬된 창 22장 1-19절

아케다라 불리는 창 22장의 개찬에 있어서 회년서가 보이는 가장 두드

러진 차이점은 욱기와 같은 상황을 창 22장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욱 1 - 2장)가 욱의 믿음을 시험하게 된 동기가 된 것처럼, 마스테마가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대한 의구심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으로 회년서의 아케다가 시작된다.

... 아브라함에 대한 천상의 음성이 들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신실하였으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아브라함이 모든 어려움에도 여전히 신실하였다. 사단 마스테마가 들어와 하나님께 말했다: '아브라함이 진심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에게 [이삭을]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하나님]은 그[아브라함]가 이 명령을 준행하는 볼 것이며 이 시험을 통해 그가 모든 면에서 신실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사역 회년서 17: 15-16).

창세기의 아케다는 단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창 22: 1)라는 문구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나 가혹하고 비도덕적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 22: 2).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려는지 충분한 동기를 듣지 못한 채 이야기를 읽는 독자나 이야기 속의 아브라함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12절의 말씀이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창 12: 1-3),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 온 아브라함을 누구보다 잘 아셔야 할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아셨다니 놀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전지(omniscience)하신 분이 아니신가? 이러한 문맥상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회년서의 저자가 다시 한 번 대담한 기교를 발휘한다. 저자는 아브라함이 언제나 신실했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문구를 반복하여 기술함으로써(창 17: 15, 17, 18) 하나님의 전지(omniscience)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을 제거하는 한편,¹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한번도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던 '신실함'(faithful)이란 단어를 일곱 번이나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열심과 신실함을 확고히 하였

18) VanderKam, *The Book of Jubilees: Guides*, 52쪽.

다.¹⁹⁾

이제 한 가지 질문만이 남는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해야 했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테마가 등장하게 되고, 의심하는 마스테마에게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알지 못했던 것은 마스테마였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마스테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회년서 18: 9),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다시 한번 칭찬하신다(회년서 18: 16).

3. 결론

회년서에서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개찬하면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전체를 통해 점진적으로 표현하였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도덕적인 허점도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회년서는 아브라함은 출생에서부터 일관된 종교적 열정과 도덕적 완전함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였음을 표현하였다.

둘째,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련하여,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과 배타적 성결 사상이 회년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회년서의 역사적 전경을 1 마카비서 1장 11-15절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고 한 학자들의 주장을 고려하면,²⁰⁾ 위에서 언급한 회년서의 아브라함은, 주변 열강의 다문화 정책의 위협 아래 있던 제 2성전기의 유대

19) 구약에서 ‘신실함(히브리어 אֱמֻנָה) ‘이란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사용된 경우는 오직 한번 느 9장 8절에서이다. 그러나 느헤미야에서는 ‘그 마음’이 신실하다고 한 반면, 회년서에서는 단적으로 ‘아브라함’이 신실하다고 한다. 창 15장 6절의 개찬문인 회년서 14장 6절의 “아브람이 하나님을 믿으니”에 사용된 이디오피아 동사 ‘amna(어근 ‘amna와 어미 o)이고, ‘신실하다’의 의미로 회년서 17장 15, 16, 17절에 사용된 mahaymen과 18절에 두 번 사용된 me’mana는 모두 어근 ‘amna와 관련이 있다. 이디오피아 사본의 질문에 대한 제임스 반더캄의 이메일 답변(2005년 5월 23일).

20) VanderKam, “Origins and Purposes,” 22쪽. Cf. Murphy, F. J. “Retelling the Bible: Idolatry in Pseudo-Philo.” *JBL* 107 (1988), 284-87쪽. H. A. Jacobson, *Commentary on Pseudo-Philo’s Liber Antiquitatum Biblicarum: With Latin Text and English Translation*, vol. 1. (Leiden: Brill, 1996), 210-15쪽. Endres, *Biblical Interpretation*, 238쪽.

인들이 이방 종교와 문화로부터 유대 종교와 문화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신학적 사고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회년서 저자의 주석 방법에 있어서 놀라운 사실은, 그가 단순히 이러한 신학 사상적 논쟁을 전개하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무작위로 삭제하거나 불필요한 추가 구문을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성서 원문에 존재하는 문학적 오류나 해석학적 난제를 당면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풀어 가는 과정에서, 회년서의 저자가 자신의 신학적 논쟁(응용 주석)을, 발견된 문학적 오류를 정정하고 해석학적 문제를 해결(순수 주석)하는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성서 원문과 자신이 속한 역사적 상황에 모두 충실하고자 한 회년서 저자의 재치 있는 노력(이중 기능 반응)에 박수를 보낸다.²¹⁾

4. 참고문헌

- 오 원근, “개찬성경의 유대 주석 전통상의 위치,” 「구약논단」 제 22집 (2006년 12월), 129-142쪽.
_____, “창세기의 성결사상” 「구약논단」 제 26집 (2007년 12월), 10-29쪽.
Alexander T. D., “Abraham Re-assessed Theologically: The Abraham Narrative and the New Testament Understanding of Justification by Faith,” R. S. Hess/G. J. Wenham/P. E. Satterthwaite(eds.), *He Swore an Oath: Biblical Themes from Genesis 12-50*, (Grand Rapids, MI: Baker Book, 1994²⁾, 142-151쪽.
Charles, R. H., *The Book of Jubilees or the Little Genesis: Translated from the Editor's Ethiopic Text*, (London: Adam and Charles Black, 1902).
Dahl, N. A., “The Story of Abraham in Luke-Acts,” L. E. Keck/J. L. Martyn(eds.), *Studies in Luke-Acts*,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Davenport G. L., *The Eschatology of the Book of Jubilees* (SPB 20), (Leiden: Brill, 1971).
Endres, J. C., *Biblical Interpretation in the Book of Jubilees* (CBQMS 18), (Washington: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of America, 1987).

21) 베메쉬는 제 2 성전기 문헌에 나타난 주석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그는 성서 원문 안에 존재하는 문맥상 오류나 공백, 해석학적 난제 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순수 주석(pure exegesis)”이라 이름하고, 현실적인 종교-문화적 상황에 관한 문제를 신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성서 원문을 자유롭게 조작하려는 노력을 응용 주석(applied exegesis)이라 명명하였다. 베메쉬 이후 많은 학자들이 제 2 성전기의 문헌에 나타난 응용 주석의 연구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최근 할펀-아미루는 순수 주석과 응용 주석이 “정교하게 짜여진(finely interwoven)” 형태인 “이중 기능 반응(dual functioning response)”이 제 2 성전기 문헌에-특히, 회년서와 같은 개찬성경에- 주로 사용된 주석 방법임을 주장하였다. G. Vermes, *Scripture and Tradition in Judaism: Haggadic Studies*, 2nd rev. ed. (Leiden: E. J. Brill, 1973), 62쪽; Halpern-Amaru, *Empowerment of Women*, 135-137쪽.

- Halpern-Amaru, B., *The Empowerment of Women in the Book of Jubilees*(JSJSup 60), (Leiden: Brill, 1999).
- Hansen, G. W., *Abraham in Galatians: Epistolary and Rhetorical Contexts*(JSNTSup 2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Moxnes, H., *Theology in Conflict: Studies in Paul's Understanding of God in Romans*(NovTSup 53), (Leiden: Brill, 1980).
- Nickelsburg, G. W. E., *Jewish Literature Between the Bible and the Mishnah: A Historical and Literary Introduction*, (London: SCM, 1981).
- Sandmel S., *Philo's Place in Judaism: A Study of Conceptions of Abraham in Jewish Literature*, (Cincinnati: Hebrew Union College Press, 1956).
- Siker, J. S., *Disinheriting the Jews: Abraham in Early Christian Controversy*, (Louisville: Westminster, 1991).
- VanderKam, J. C., *Textual and Historical Studies in the Book of Jubilees* (HSM 14), (Missoula: Scholars Press, 1977).
- _____, *The Book of Jubilees: Guides to Apocrypha and Pseudepigrapha*,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_____, "The Origins and Purposes of the Book of Jubilees," M. Albani/J. Frey/A. Lange(eds.), *Studies in the Book of Jubilees*(TSAJ65), (Tübingen: Mohr, 1997), 3-23쪽.
- Van Ruiten, J. T. A. G. M., *Primaevial History Interpreted: The Rewriting of Genesis 1-11 in the book of Jubilees*(JSJSup 66), (Leiden: Brill, 2000).
- Ward, R. B., "Abraham Traditions in Early Christianity," R. A. Kraft(ed.), *1972 Proceedings: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eptuagint and Cognate Studies and the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Pseudepigrapha Seminar* (SCS 2), (Missoula: SBL, 1972), 165-179쪽.
- Wintemute, O. S., "Jubilees," J. H. Charlesworth(ed.), *The Old Testament Pseudepigrapha. Vol.2: Expansions of the "Old Testament" and Legends, Wisdom and Philosophical Literature, Prayers, Psalms, and Odes, Fragments of Lost Judeo-Hellenistic Works* (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85), 35-142쪽.

검색어

희년서 • 아브라함 • 창세기 • 개찬성경

투고일: 2008년 10월 7일

심사일: 2008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7일

Abraham in the Book of Genesis and Jubilees

Won-Keun OH

Adjunct Professor at Korea Nazarene University
The University of Manchester Ph. D.

The rewritten Bible of the Second Temple period, the content of which to a great extent overlaps with the biblical texts, read the Bible with close attention, noting obscurities, inconsistencies and narrative lacunae, in order to make the biblical texts more vivid, more edifying, and more understandable to the contemporary reader.

It is notable that the rewritten Bible paid great attention to Abraham, creating differing portraits of Abraham by interweaving the biblical account with the polemical interests of their own. In this paper, we will draw on Jubilees' account of Abraham. From a literary perspective, Jubilees is most extensive and accurate in rewriting the contents of the Genesis account of Abraham among the so-called rewritten Bible.

The features of Abraham in the rewritten Bible support well the generally accepted historical context of the rewritten Bible at the turn of the era as Judeans were subject to foreign powers who were at least

interested in blending them into the surrounding culture. In this context, the authors of Jubilees made a fresh reading on Abraham in an attempt not to compromise with the gentile cultures and its erosive effects on the traditional Jewish religious practice and separation by interweaving his polemic interests and the biblical interpretation.

Keywords

Jubilees
Abraham
Genesis
Rewritten Bible